



주간 통일정세

2012-47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체육지도위원장' 장성택, 日체대 대표단 만나(11/14, 조선중앙TV)
 - 북한의 최고 실세로 통하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자격으로 최근 방북한 일본체육대학 대표단을 만났다고 조선중앙TV이 14일 전함.
 - 이 방송은 장 부위원장이 14일 마쓰나미 겐시로(松浪健四郎.66) 대학 이사장 등 일본 체대 대표단의 주요 인물들과 일본의 전 프로레슬러 출신 이노키 간지 이노키게놈연합주식회사 회장을 만나 담화를 했다고 보도함.

- 北김정은, 시진핑 신임 中공산당 총서기에 축전(11/15, 조선중앙통신 등)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5일 중국의 새 지도자로 부상한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축전에서 "나는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당신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거(선출)된 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라며 "중국인민의 사회주의현대화 건설위업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시기에 당신이 중국공산당 총서기,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중책을 지니게 된 것은 당신에 대한 귀 당의 전체 당원과 군대와 인민의 두터운 신뢰와 기대의 표시로 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또 "조(북)중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적인 인방(이웃나라)이며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진 조중친선은 두 당,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의 심혈과 노고가 깃들어 있는 공동의 귀중한 재부"라며 "나는 세대와 세기를 이어온 전통적인 조중친선이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계속 강화발전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함.



■ 김정은동향

- 11/13, 김정은 黨 제1비서, '6.18건설돌격대 지원'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11.13,중방)
- 11/14, 김정은 黨 제1비서, 11.13 평양 금성학원 학생들에게 '밤' 전달(11.14,중통)
- 11/16, 김정은 黨 제1비서, 11.16 시리아 대통령에게 '시정운동' 42돌 즈음 축전(11.16,중통·중방)
- 11/17,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시 內 공원꾸리기와 호완정리공사에 참가한 군부대들에 감사전달(11.17,중방)
- 11/17, 김정은 黨 제1비서가 보내준 체육기재 전달모임, 11.17 리영수(黨 부장)·리종무(체육상) 등 참가下 청춘거리 경경기관에서 진행(11.17,중통)
- 11/17,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시 공원꾸리기와 호안정리공사(합장강·보통강)에 참가한 부대 군인들에게 '감사' 전달(11.17,중방)
- 11/18, 김정은 黨 제1비서,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11.18,중통·중방·평방)
 - 김경희, 장성택, 김기남, 박도춘,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로두철, 조연준, 리영수, 로성실 등 참가
- 11/18,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 대표들에게 보낸 '선물' 전달 모임, 11.18 리영수(黨 부장) 등 참가下 진행(11.18,중통·중방)
 -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 대표들, 당창건기념탑 및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참관(11.18,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김영일(黨비서), 11.13 日 이노끼게놈연합(株) 회장(이노끼 간지)과 일행 및 日 체육대학 대표단 주요성원들을 만나 담화(11.13,중통·평방)
- 용천광산 선광장 조업식, 11.14 태종수(함남도당 책임비서), 석덕환(단천지구광업총국 당 책임비서/보고) 등 참가下 진행(11.14,중방)

나. 경제

● 北서 식품공장 14개 운영중(11/15,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에서 총 14개의 식품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전함.
- 나나 스카우 WFP 북한 담당 대변인은 이 방송에 "지난 9월 평양에서 옥수수과 밀가루를 이용해 영양강화 비스킷을 만드는 식품가공공장이 새로 문을 열었다"며 "북한에 있는 14개 공장에서 올해 3분기 생산한 식품의 양은 1만200t으로 이전보다 10% 늘었다"고 밝힘.



- 영양강화 비스킷은 옥수수과 밀가루를 주재료로 가로, 세로 5cm의 정사각형 모양의 과자로 'WFF'라는 글자가 새겨져 학교와 탁아소 등 아동시설에 공급되며 어린이 1명당 하루 2개씩을 지원함.

● '고공행진' 北쌀값, 상승세 주춤(11/16, 데일리NK)

- 반년 넘게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지난 9월 최고치를 기록했던 북한의 쌀값이 지난달에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대북매체 데일리NK가 보도함.
- 이 신문이 주기적으로 집계해 공개하는 '북한 장마당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29일 평양, 신의주, 혜산 등 북한 3개 주요도시 쌀값은 전달 대비 kg당 100~800원(북한원화) 떨어진 6천원, 6천100원, 6천200원이었으며, 특히 평양지역 쌀값은 전달 대비 800원이나 떨어져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힘.

다. 사회·문화

● 北 주작물 생산 2년 연속 증가...식량부족 여전(11/12, 연합뉴스)

- 북한 농가의 주작물 생산이 2년째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서 12일 밝힘.
- 유엔 조사팀이 지난 9~10월 수확기에 북한 9개 농업지역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작물 생산은 증가했지만 주민들의 필수 단백질과 지방 섭취 부족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북한의 대두 생산이 30%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채소류도 적어 기본적인 식량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50만7천t의 곡물을 수입해야 한다고 밝힘.

● 北잡지, 금강산서 발굴 금동아미타여래삼존불 소개(11/13, 조선)

- 고려 말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아미타여래삼존불상이 금강산에서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북한의 선전용 화보잡지 '조선'이 13일 보도함.
- 이 잡지 11월호에 따르면 평양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 최근 금동아미타여래삼존불상을 전시해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 불상들은 2009년 10월 금강산 주봉인 비로봉에서 발견됐으며 14세기 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됨.
- 이 불상들은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지장보살과 관음보살이 연꽃받침대에 걸기부좌 한 모습이며, 아미타여래좌상(15.2cm)의 경우 여래 징표인 고수머리에 고개를 약간 숙인 자세로 두 손에 보주를 잡고 있음.

● 北, 문화유산보호법 제정...무형문화도 보호대상(11/15, 민주조선)

- 북한이 구전문화를 비롯한 무형의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고 민주조선이 밝힘.



다"고 강조함.

● **北, 중국 관광객 유치 위해 규제 완화(11/14, 자유아시아방송(RFA); 아주 시보(亞洲時報))**

- 북한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 적용하던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홍콩 아주시보(亞洲時報)를 인용해 14일 전함.
- 아주시보는 지난 8일 보도한 중국인 북한 관광 동행기사에서 과거 몇 주씩 걸렸던 북한 비자 발급이 하루 만에 이뤄졌으며 북중 국경에서 북한 측 출입국 심사원은 중국 관광객의 여권을 꼼꼼히 검사하지도 않았다고 밝힘.
- 또 북한은 관광객들이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차량 맨 뒷좌석에 앉아있곤 했던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도 사라졌다고 이 매체는 전함.

● **北-中 '2013년 체육교류의정서' 체결(11/15, 조선중앙방송)**

- 북한과 중국이 14일 평양에서 '2013년 체육교류의정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5일 밝힘.
- 이 방송은 "북한 내각 체육성과 중국 국가체육총국 사이에 2013년 체육교류의정서가 14일 평양에서 조인됐다"며 "손광호 체육성 부상과 오제 중국 국가체육총국 부총국장, 오세광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문화참사가 조인식에 참석했다"고 전함.

● **北, 박사급 IT인력 5명 中파견 추진(11/16,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6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산하기관이 지난 9일 낸 '북한 소프트웨어 기술인력 교류·합작' 공고문에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각종 프로그램과 관련한 북한 인력의 중국 파견이 추진 중"이라며 "북한의 전문 IT 인력 대다수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밝혔고 북한이 박사급 정보통신(IT) 인력 5명을 중국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
- 이 방송은 북한이 이번에 중국에 파견하는 박사급 IT 인력을 5명으로 제시하면서 앞으로 중국 측 수요에 따라 파견 인원을 늘리길 원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임.

● **北日회담 북대표 "日과 심도있는 논의 진행"(11/16, 조선신보)**

- 북한 외무성의 송일호 북일교섭 담당 대사는 몽골에서 15일 열린 일본과의 첫날 국장급 회의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6일 보도함.
- 이 신문은 이날 "첫날 회담에서 조(북)·일 쌍방은 '각기 관심사항들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히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전했으며, "송일호 대사는 이번 회담이 오랜 중단기간을 거쳐 실현된



정부 간 회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회답은 정부의 위임을 받은 대표들이 정식으로 마주앉게 되는 만큼 쌍방에 관계개선의 의향이 있다면 서로 관심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협상의 궤도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함.

- 또한 신문은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은 '모처럼 마련된 회답에서 두 나라 사이의 현안을 폭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특정한 의제만을 다루는 회답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함.
- 조선신보는 회답 첫날 일본 측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의제로 삼자고 요구했고, 북한 측이 전후 북한에서 숨진 일본인 유골 수습 등 '인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일본인 유골 문제 해결은 일본에 필요한 일이지 '북조선의 관심사항'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임.

● 北일간 후속회담 조기개최 합의(11/17, 조선신보)

- 북한과 일본이 4년 만에 열린 회답에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후속회담을 조기 개최하는데 합의했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7일 보도함.
-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송일호 북일교섭 담당대사는 지난 15~1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북일 간 국장급 회답이 끝난 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회답이 진행됐다"고 밝혔고 "회담에서는 조일(북일)평양 선언이 두 나라 관계개선의 이정표로 된다는 데 대해 쌍방이 견해를 같이했다"며 "(후속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임.
- 이 신문은 "이번 회답은 일본측도 대화외교의 틀을 유지하는데 주안을 둔 것으로 보인다. 조선측이 주장했듯이 회답에서 관계개선의 견지에서 쌍방의 관심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으로써 4년간의 북일교착을 타개하는 계기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후속회담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는 중국주재 대사관을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함.

● 北 송일호 "북일 회답 진전 있었다"(11/18, 교도통신)

- 몽골에서 열린 북한과 일본의 국장급 회답에 북한 대표로 참석한 송일호 북일 교섭 담당대사가 회답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함.
- 이 통신은 송 대사가 이날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경유지인 베이징으로 떠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나는 (북일 회답이)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양국 간에는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많다. 1, 2회의 협의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으나, 송 대사는 그러나 '진전'이 있었다는 부분이 어떤 의제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전함.



■ 기타 (대외 일반)

- 美의 오키나와 해상 '방위태세강화훈련' 실시를 '주변국을 위협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 재침 망상은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11.14, 중통·민주조선/재침준비 완성을 위한 일본의 군사적 도발)
- 北 체육성(손광호 부상) - 中 국가체육총국(오제 부총국장), 11.14 '2013년 체육교류의정서' 평양에서 조인(11.15, 중방·중통)
- 中國국가체육총국대표단, 만경대주체사상탑·개선문·국가선물관·인민아외빙상장·하나음악정보센터·우의탑 등 참관(11.16, 중통·평방)
- 일제의 '을사늑약' 날조(1905.11.17) 107돌 즈음 '국제법상 요구와 원칙을 유린한 허위문서'라고 비난하며 '과거청산' 촉구(11.17, 중통·노동신문/일본은 죄 많은 과거를 반드시 청산하여야 한다)
-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대 공습 등 이스라엘-팔레스티나 '군사적 긴장고조' 보도(11.18, 중방)

나. 6자회담(북핵)

● 北 "美, 조선 적대 정책 포기해야 핵문제 해결"(11/12,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미국이 우리를 반대하는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조선반도 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조미(북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핵 문제를 해결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려면 우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이날 '모든 것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철회에 달려있다'란 개인 필명의 논설에서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한사코 회피하고 교전상태를 지속시키는 것 자체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라며 "미국은 정전협정의 주요 조항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을 끊임없이 증대시켜 끝내는 우리를 핵보유로 떠밀었다"고 비난함.
- 이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쌍방은 서로 상대 측으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 교전관계가 완화 해소되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반도 핵 문제도 풀릴 것"이라며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함.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南서 화해세력 집권시 협력·교류 활성화"(11/15, 노동신문)**
 - 북한은 15일 남한의 차기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경우 그동안 중단된 남북간 협력사업이 전면 활성화될 것이라고 노동신문을 통해 밝힘.
 - 이 신문은 이날 '실패한 대북정책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에서 화해지향적인 세력이 집권하고 북남관계 개선에 나선다면 중단된 협력과 교류사업들이 각 방면에 걸쳐 전면적으로 활성화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또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민족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며 "악화된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강렬한 지향이며 현실의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함.

- **北, 대선개입 비난에 "응당한 단죄" 주장(11/16,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북한은 16일 남한의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비난에 대해 남측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구한 점 등을 거론하며 "죄행에 대한 우리의 응당한 단죄"라고 주장했다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이날 밝힘.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서기국보도에서 "허위날조와 모략으로 우리 존엄과 체제를 시비하는 괴뢰보수패당이 '북의 대선개입'을 입에 올리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도적이 도리어 매를 두는 추태"라고 공격하며, 정부나 여당인사들이 대선국면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이나 북한인권문제 등을 거론한 것을 문제삼아 남측이 먼저 북한의 존엄과 체제를 비난하고 도발적으로 나왔다고 주장함.
 - 조평통은 또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지난달 대북전단을 살포하려 했던 점도 거론하며 "(남한정부가) 그 누구의 '군사도발'을 운운하면서 외세와 결탁해 북침전쟁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함.
 - 특히 "앞으로도 우리는 이명박 역적과 새누리당 패거리들의 반공화국모략소동, 도발책동에 대해 추호도 용서치 않고 단호하게 짓밟개 버릴 것"이라며 유사한 방법의 대선개입 시도를 계속 해나갈 것임을 시사함.

나. 경제·사회·문화

- **남북불교도, 개성서 합동법회 봉행(11/16, 평양방송)**
 - 남북한 불교도가 15일 개성 영통사에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911주기 다례제 및 영통사 낙성 7주년 합동법회를 봉행했다고 평양방송이 16일 전함.
 - 남북 불교도는 법회에서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존중하고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실천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발언문을 채택



했고, 이번 합동법회에는 법회 당일 방북한 김용태 사무국장 등 천태종 관계자 20명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중앙위원회 교직자, 영동사 승려·신도가 참석했다고 보도함.

■ 기타 (대남)

- 박근혜 大選후보의 '외교안보통일정책공약(11.5)'은 "이○○의 對北정책보다 위험천만한 불씨를 배태하고 있는 전면대결공약, 전쟁공약"이라고 지속 집중 비난(11.12,중통 논평/역사의 오물통에서 뚜져낸 대결공약, 평방/논평, 흡수통일 야망이 비낀 대결공약)
- [조선중앙통신社 논평] '통일부, 정대협 벌금납부 조건부 유예결정' 관련 '일본의 과거범죄에 대한 배상과 재침책동을 배격하는 전민적 애국투쟁을 막아보려는 용납 못할 친일매국 망동'이라고 왜곡 비난(11.13,중통/용납 못할 친일매국망동)
- 유엔에서의 '北 인권문제' 거론 관련 '동족을 걸고들며 인권모략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속심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南과 국제사회의 규탄요구를 녹잡히고 여론 이목을 딛 데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왜곡 주장(11.13,노동신문·증방/파멸을 재촉하는 인권모략소동)
-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문 대답(11.17)】 우리정부의 '연평도 포격전(11.23) 2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연평도에서 당한 참패만회, 대결의식을 고취해 보수정권을 연장해 보려는 발악에 불과하다'고 비난(11.17,중통·평방)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외교부 북핵단장 방미..한미, 대북정책 협의(11/16,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성공 이후 한국과 미국간의 북한문제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우리 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이도훈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을 방문함. 이 단장은 방미기간 클리퍼드 하트 국무부 대북특사 등 북핵 담당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 오바마 제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북핵 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 한미 양국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향후 대북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이 단장과 하트 특사는 지난 9월 말 중국 다롄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기간에 만난 바 있음. 외교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김수권 평화외교기획단장도 미국 대신 직전인 지난 5일 미국을 방문, 대북 정책 공조 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음. 미국은 한국의 차기 행정부 출범 후 한국과 대북정책을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짐.

● "美 북핵협상 '先비확산·後비핵화' 배제 못해"(11/16, 연합뉴스)

- 미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선(先) 비확산, 후(後) 비핵화를 협상의 수단으로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됨.
-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충남 부여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미국 신국가안보센터(CNAS) 연구진 일부에서 북핵 문제의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를 제안했다"면서 이같이 말함. '전략적 관리'는 제1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취해왔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보다 적극적 개입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박 연구위원은 '전략적 관리'에 대해 "단·중기적 차원에서 북핵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先 비확산)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접근하지는 전략적 구도"라고 설명함. 그는 "전략적 관리"는 북한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상황 악화 방지 차원에서 북한과 타협 가능한 협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평가함.
- 그러나 '전략적 관리'에 대해 "북한의 전략 목표와 협상 방식을 선의로 보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함. 그는 차기 한국 정부에 대해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동시 병행적으



로 풀어나가는 대안을 마련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함.

- 김근식 경남대교수는 과거 대북 포용정책으로의 복귀가 필요하다면서도 "단순한 기계적 복귀를 넘어 대북포용의 진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함. 김 교수는 포용정책 진화와 관련, "제도화 등을 통해 보수 정부도 되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 변화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구조적 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나. 미·북 관계

● 美백악관 "北, '미안마의 길' 따라야"(11/16, 연합뉴스)

- 톰 도널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택을 한 미안마의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말함.
- 도널런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정책'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미안마는 오랜 기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 혹독한 경제제재를 받았으나 최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섰다"면서 이같이 촉구함.
-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달 말 미안마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 "이번 방문으로 미안마의 선택은 부각됐다"면서 "북한은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함. 그러나 도널런 보좌관은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은 격리돼 있고, 경제적으로 실패했다"고 비판함.
- 그는 그러나 북한의 미안마의 핵무기 개발 협력, 시리아 정권에 대한 무기수출 의혹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이어 도널런 보좌관은 "미국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동맹국인 한국과 매우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맞서 협력하고 있고, 한국의 방어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말함. 그는 이밖에 "한국과는 최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비전을 채택했고, 자유무역협정(FTA)도 체결하는 등 전례 없는 관계를 구축했다"면서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소말리아 해적퇴치 활동 등 세계 안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함.

다. 중·북 관계

● "中 새 지도부, 탈북자 복송 지속할 것"〈美전문가〉(11/15, 연합뉴스)

-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 속에서 시진핑 등 중국 새 지도부의 대북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며 특히 탈북자 강제복송도 지속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전함.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이 방송에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중국은 탈북자 강제복송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 해도 중국의 대북 접근법엔



-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봄.
- 그는 또 중국은 북한이 경제개혁을 통해 안정되기를 몹시 원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중국도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해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할 것이라고 밝힘.
 - 헤리티지재단의 딘 쉐 연구원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며 "만일 중국이 조금이라도 이 정책에 변화를 주면 더 많은 탈북자가 중국에 유입될 것이고 이는 북중 관계를 훼손하는 등 중국 당국이 전혀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허드슨연구소의 멜라니 커크패트릭 선임연구원도 "중국이 탈북자 강제복송 정책을 중단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며 시진핑이 집권해도 탈북자 복송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함.
 -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가 '현상유지와 북한의 안정이기 때문에 중국의 새 지도부가 기존의 대북정책 기초를 대체로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임.
- **北김정은, 시진핑 신임 中공산당 총서기에 축전(11/15, 연합뉴스)**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5일 중국의 새 지도자로 부상한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축전에서 "나는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당신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거(선출)된 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라며 "중국인민의 사회주의현대화 건설위업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시기에 당신이 중국공산당 총서기,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중책을 지니게 된 것은 당신에 대한 귀 당의 전체 당원과 군대와 인민의 두터운 신뢰와 기대의 표시로 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또 "조(북)중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적인 인방(이웃나라)이며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진 조중친선은 두 당,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의 심혈과 노고가 깃들어 있는 공동의 귀중한 재부"라며 "나는 세대와 세기를 이어온 전통적인 조중친선이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계속 강화발전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함.
 - 이번 축전은 김 제1위원장 개인 명의로 보낸 것임. 북한은 이날 낮 12시 58분 평양방송의 기극 녹음실황과 조선중앙방송의 음악프로그램을 갑자기 중단하고 김 제1위원장의 축전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함.
- **中, '中화물선 조선 미사일부품 적재'사건 법대로 처리(11/15, 인민일보)**
- 14일 열린 외교부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올해 5월 한국 측에 나포된 중국 국적 선박에서 조선에서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탄도미사일 부품이 실려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중국 측은 이를 어떻게 보는지"라는 질문을 던짐.



- 이에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이미 확인했으며, 중국은 대규모 살상무기는 물론 운반도구에 대한 확산에 반대하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안과 자국의 확산방지 수출규제법규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바다. 안보리 결의안과 중국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중국은 법에 의거해 처리할 것이다"라고 밝힘.

● "北, 박사급 IT인력 5명 中파견 추진" <美방송>(11/16, 연합뉴스)

- 북한이 박사급 정보통신(IT) 인력 5명을 중국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짐.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6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산하기관이 지난 9일 낸 '북한 소프트웨어 기술인력 교류·협작' 공고문에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각종 프로그램과 관련한 북한 인력의 중국 파견이 추진 중"이라며 "북한의 전문 IT 인력 대다수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이에 대해 네덜란드의 대북투자 전문 자문회사인 GPI컨설팅사의 폴 치아 대표는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IT 인력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기본 기술력을 갖췄고 유럽과 중국 등에서 최신 기술도 습득해 왔다"며 "북한이 외국에 기술 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유대 강화 측면에서 좋은 일"이라고 평가함. RFA는 북한이 이번에 중국에 파견하는 박사급 IT 인력을 5명으로 제시하면서 앞으로 중국 측 수요에 따라 파견 인원을 늘리길 원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임.
- 북한과 중국은 지난달 15일 단둥에서 노무협작교류회를 열고 중국의 인력수요와 북한의 인력자원 상황, 직업 훈련 등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인력파견 교섭·관리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라. 일·북 관계

● "日, 요코타 메구미 부모 방북 추진"(종합)(11/15,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부모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함.
- 이 통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1977년 11월 니가타(新潟)에서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여, 당시 13세)의 부모 시게루(80)·사키에(76)씨 부부를 방북하게 하는 방안을 놓고 북한 측과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음. 방북 목적은 메구미의 딸인 김은경(25)을 면회한다는 명목임. 김은경은 메구미와 한국인 납북자인 김영남과의 사이에 태어났으며, 현재 평양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일본 정부는 메구미 부모의 방북과 관련한 북한과의 협의 사실을 부인함.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예단을 갖고 얘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함.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교섭 담당대사와 회담을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에 머물고 있는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그런 협의 사실이 없다"고 말함.
- 메구미의 부모는 아직 외손녀인 김은경을 만나지 못했음. 납치자 문제



의 종결에 이용될 수 있다며 주변에서 만류했기 때문임. 북한은 메구미가 숨졌다고 밝혔지만, 일본은 2004년 북한이 보낸 유골이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재조사를 요구함.

- 한편 북한과 일본은 15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국장급 회의를 열었다. 오전에 2시간, 오후 4시간30분 정도 논의함. 일본측은 이날 회담에서 요코타 메구미 등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의제로 삼자고 요구했고, 북측은 전후 북한에서 숨진 일본인 유골 수습 등 '인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짐. 스기야마 국장은 회담 후 일본 취재진에 "서로 할 말을 했다. 깊은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지만 어떤 논의가 진행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음. 논의 결과는 16일 회담이 끝난 뒤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됨.

● <北, 새 신발 선전...디자인은 日아시스 판박이>(11/16, 연합뉴스)

- 북한이 새 제품이라고 선전한 운동화가 일본 유명 상표 제품과 디자인이 흡사한 것으로 나타남. 조선중앙TV는 15일 오후 8시 뉴스에서 평양 류원신발공장에서 새 형태의 신발을 생산했다면서 일본의 스포츠 브랜드인 아시스(ASICS)와 디자인이 거의 똑같은 운동화를 선보임.
- 이 공장 기술준비원(연구원) 김혜련은 "이번에 우리 공장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신발을 많이 만들어 냈는데 그중에서도 체육부문에 필요한 신발들을 새롭게 만들어냈다"며 아시스와 흡사한 디자인의 운동화를 들고 "이 신발은 역기(역도)화다. 이 신발은 (역도)운동의 특성에 맞게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힘을 받아줄 수 있게 신발뒤축을 나무로 깎아서 만들었다"고 설명함. 북한이 역도선수용 운동화로 소개한 이 제품은 정품 아시스 운동화와 거의 똑같이 생겼으나 운동화 뒷부분에 '류원'이라는 해당 신발공장의 상호가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임. 평양시 만경대 구역에 있는 류원신발공장은 북한이 그동안 경공업부문의 '모범 단위로 내세워왔던 신발공장임.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9일 "류원신발공장에서 새 제품 개발을 위한 종업원들의 현상모집(현상공모)을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독특한 채본 인쇄방법과 새로운 신발설계프로그램 등도 개발했다"며 "자체의 제품개발 능력을 부단히 높여온 이 공장의 제품들은 각지 백화점에서 구매자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함.
- 이 공장에서 제품의 설계와 제작 등 생산 전반을 관장하는 기사장(수석 엔지니어) 김세철(67)은 1960년 북한으로 건너간 재일교포 출신으로 한 덕수평양경공업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대 초 이 공장에 부임했음. 이 때문에 일본과 연고가 있는 김 기사장이 일본 아시스 제품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음.
- 하지만 아시스코리아 관계자는 16일 "아시스에서는 북한에 브랜드를 빌려준 사실이 없으며 OEM 방식으로도 생산을 허용한 적이 없다"며 "이 제품은 아시스 디자인을 베낀 것"이라고 지적함. 이 관계자는 "북한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아시스제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역도선수들이 아시스 운동화를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함. 한 북한 전문



가는 "북한에는 저작권 보호 개념이 없어 외국의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상품을 마음대로 만들어낸다"고 설명함.

● **北日회담 북대표 "日과 심도있는 논의 진행"(11/16,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의 송일호 북일교섭 담당 대사는 몽골에서 15일 열린 일본과의 첫날 국장급 회의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6일 보도함. 조선신보는 이날 "첫날 회담에서 조(북)·일 쌍방은 '각기 관심사항들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히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전함.
- 이어 "송일호 대사는 이번 회담이 오랜 중단기간을 거쳐 실현된 정부간 회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은 정부의 위임을 받은 대표들이 정식으로 마주앉게 되는 만큼 쌍방에 관계개선의 의향이 있다면 서로 관심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협상의 궤도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함.
- 신문은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은 '모처럼 마련된 회담에서 두 나라 사이의 현안을 폭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특정한 의제만을 다루는 회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함.
- 조선신보는 회담 첫날 일본 측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의제로 삼자고 요구했고, 북한 측이 전후 북한에서 숨진 일본인 유골 수습 등 '인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일본인 유골 문제 해결은 일본에 필요한 일이지 '북조선의 관심사항'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 '수사공조' 한국 관계자들에 감사패〉(11/15, 연합뉴스)**

- 한미 사법당국 간 원활한 수사 공조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 관계자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음. 한국 검찰과 경찰, 법무부, 관세청 관계자 8명은 15일 오후 서울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성 김 주한 미국대사로부터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국장상'을 전달받음.
- 수상자들은 지난 1년간 국토안보부 산하 수사기관인 HSI와 긴밀히 협력, 지적재산권 위반, 재산은닉 범죄 등에 신속하게 대응했음. 이 상은 미 국토안보부가 수여하는 관련 부문 최고의 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 수사관들에게만 수여됐다고 HSI 한국지부측은 전함.
- 성 김 대사는 축사에서 "한국 수사기관에서 미국의 수사기관과 열심히 공조한 데 대해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며 "(한미) 국제 공조를 통해서 수백 명이 검거됐고 많은 범죄 수익이 환수됐다"고 밝힘. 그는 "한미 수



사기관간 공조는 단순한 수사 공조가 아니라 양국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훌륭한 공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함.

나. 한·중 관계

● **李대통령, 시진핑에 축전 "평화·공동번영 희망"(11/16,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제18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에게 축전을 전달함.
- 이 대통령은 "그간 한·중 관계의 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양국이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고, 이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이 대통령은 또 "지난 30년간 성공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해 온 중국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에 중국의 국가발전과 번영을 위해 총서기가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힘.

다. 한·일 관계

● **"韓日 재무장관회의 24, 25일 개최 논의"(11/12, 연합뉴스)**

- 한일 양국이 8월 말에 열려다가 무기한 연기된 제5차 양국 재무장관회의를 오는 24, 25일 서울에서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함. 다만 일본 민주당 정권이 이달 중 국회를 조기 해산할 가능성도 있어 회의 일지는 여전히 유동적임.
- 교도통신은 "이번 회의에서는 국채 관리 정책이나 세제, 지방재정 등 내정상 정보 교환이 중심이고, 국제금융분야는 주요 의제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이라고 전함. 한일재무장관회의는 8월 말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 발언 등에 반발하면서 무기한 연기됐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을 때 조지마 고리키(城島光力) 재무상을 만나 때 서울에서 회의를 연다는데 합의했고, 개최 일시를 논의해왔음.

● **한국, 타케시마 영유권 주장에 금년도의 2·7배의 예산(11/12, 요미우리신문)**

- 한국이 시마네현·타케시마의 영유권 주장에 충당하는 관련 예산을 2013년도는 금년도의 2·7배에 해당되는 62억 2000만원(약 4억 5000만 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 정부당국자가 12일 명백히 밝힘.
- 한국 정부는 당초, 타케시마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의 단독 제소의 준비를 진행시키는 일본에 대항하여, 예산을 금년도의 23억 2000만원에서 42억 2000만원에 증액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함. 이후, 외교



통상부의 통일 위원회의 심리로, 한층 더 대폭적인 증액이 정해짐. 관련 예산은, 각국의 국제법의 전문가나 정치가등을 한국에 초대해 한국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전문가 네트워크'의 구축이나, 한국 정부가 10개 국어로 소개하고 있는 타케시마 관련의 홈 페이지 작성 등에 충당된다고 전함.

라. 미·중 관계

● <“중국을 포위하라”..美 중심축 이동전략 가시화>(11/12,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호주 의회 연설에서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장기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음.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패권 야욕을 겨냥한 발언이었음. 그로부터 1년이 지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음.
- 미국 해병대원 250명은 지난해 여름 호주 다윈 항에서 호주군과 합동 군사 작전을 벌였음. 지난 4월 선발대로 도착한 이들을 시작으로 호주에 주둔하는 미국 해병대원은 2016년까지 2천500명 규모로 늘어남. 비슷한 시기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미군이 참여하는 군사 훈련이 전개됐음. 지난 9월 괌에서는 중국이 주시하는 가운데 일본 자위대와 미국 해병대가 가상의 적으로부터 도서 탈환 작전을 벌였음. 내년 초에는 싱가포르에 전투 능력을 갖춘 미군 순시선 1척이 배치됨. 엄청난 속도의 이 순시선은 중국 해군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되며 순차적으로 4척이 배치될 예정임.
- 미국이 이처럼 태평양 지역에서 병력을 일부 늘리거나 우방들과의 군사 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주말에 아시아로 향함. 그로서는 17개월 만에 4번째 방문임. 이달 말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를 순방함. 오바마 행정부가 이 지역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 패네타 장관은 호주와 태국, 캄보디아를 찾아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외교에 집중할 방침임. '재균형'은 중국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미국 국방부가 선호하는 표현임.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이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우리 정책은 이 지역 우방들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계속 강화하는 것일 뿐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임.
- 아시아에는 현재 32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다른 지역의 병력은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지만 아시아에서는 어떤 감축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음.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지금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이라는 외교 안보 정책의 초기 단계임. 그런 만큼 중동과 서남아시아에 배치된 B-1과 B-52 장거리 전폭기와 글로벌 호크 무인기 등을 태평양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급선무임. F-35 공동 타격 전투기나 P-8 포세이돈 정찰기 등과 같은 최첨단



무기들이 아시아에 배치되려면 몇 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 그러나 미국의 신중한 접근에도 중국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음.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의 '중심축 전략'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와 우려를 존중하기를 기대한다"며 날을 세웠음. 워싱턴의 국방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시아 중심축 외교가 말 뿐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음.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최근의 상황은 전임 정부에서 이미 시작했던 정책의 재포장 또는 미미한 확장에 그치고 있다는 것임. 32만 명이나 배치된 아시아의 병력을 고작 2천500명을 늘리기로 한 것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데이비드 버토 연구원은 "안정에 파리가 앉으면 아주 크게 보이면서 다른 것은 전혀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파리는 여전히 파리"라고 꼬집었음.

● **美CRS "중국 기관들, WMD기술 북한 등에 확산"(11/16, 연합뉴스)**

- 중국이 핵무기·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와 이를 운반할 미사일 관련 기술을 북한과 이란, 그리고 파키스탄에 확산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밝힘.
- CRS는 지난 7일 '중국과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의 확산'이라는 보고서에서 다양한 미국 정보당국의 보고서 등을 인용해 이같이 지적함. 1998년 북한이 대포동1호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중국발사체기술연구원(CALT)이 북한과 협력해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고서는 전함. 보고서는 또 중국 기관들(entities)이 2005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줬다는 내용을 2007년 5월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의회에 보고했다고 설명함. 보고서는 이어 1996년 중국이 파키스탄에 우리늄 농축형 원형 자석(Ring Magnet)을 대량 제공했음이 미국 언론에 의해 보도되기도 했으나 미국 정부는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힘. 이어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인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중국에서 1982년 50kg의 무기급 농축우리늄을 제공받았으며, 이외에도 핵무기 설계도 등을 넘겨받았다는 정보가 있다고 덧붙임.
- 칸 박사는 우리늄농축 방식의 핵무기 개발기술을 리비아나 북한에 넘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중국의 기업들이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제3국으로의 무기 수출 등에 직·간접으로 개입했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함.
- 보고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확산방지구상(PSI)에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화물선과 비행기 등이 중국 항구와 공항 등을 통과하는 것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돕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함. 보고서는 아시아 안보현안에 정통한 설리 칸이 작성함.



마. 미·일 관계

● 놀런드, "누가 수상이 되어도 일본 중시"(11/17, 산케이신문)

- 미국무성의 놀런드 보도관은 16일의 기자 회견에서, 다음 달 16일에 개표되는 일본의 중의원 선거를 "주의 깊게 지켜볼것"라고 말한 다음 "일·미는 가장 친밀한 동맹국이며, 누가(수상으로) 선택되었다고 해도 일·미 관계는 쌍방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해 일본 중시의 자세를 강조함.
- 놀런드는, 일본을 "가장 강력한 민주국가의 하나"라고 자리 매김을 하며 미국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판가름이 나던, 미국은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것이라고 전함.

바. 미·러 관계

● "美-러시아, 오바마 재선 이후 해빙모드" < NYT > (11/15, 연합뉴스)

- 지난 1월 마이클 맥폴 신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부임하자 러시아의 반응은 냉담했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러시아 담당 수석보좌관을 지내면서 러시아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청을 높였던 그의 이력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음. 국영방송 '채널원'은 맥폴 대사가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아우렝했음.
- '리셋(reset:관계 재설정)'으로 불리는 미국의 러시아 화해 정책이 유명 무실화한 것도 이때부터임. 맥폴 대사의 부임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본격적으로 삐걱대기 시작했음. 러시아 기업인들은 미국대사관의 공식 초청을 거부하기 일쑤였음. 푸틴은 대통령 후보 시절 미국 국무부가 자신의 집권을 막으려 모스크바 시위에 개입하고 있다고 공격하기도 함.
- 하지만 벼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된 직후 채널원의 심야 토크쇼에 나타난 맥폴 대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음. 토크쇼 진행자는 다소 어색해 보일 만큼 친근감을 표시했고 관저의 인락의 자에 앉은 맥폴 대사 역시 아주 편안한 표정이었음.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계기로 러시아에서 미국을 비판하는 발언이 잦아드는 등 한동안 냉랭했던 양국 관계에 해빙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1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함.
- 맥폴 대사가 13일 관저에서 개최한 기업인과의 조찬 간담회에는 거물급 인사들이 다수 참석함. 메시지는 분명했음.. 미국과 러시아 간의 대화채널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임. 여기서 우선 읽히는 것은 러시아 정부가 자국을 '공공의 적 1호'로 지목한 및 롬니 공화당 후보가 낙선한 데 대해 깊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임. 또 대화를 통해 무언가 얻을 것이 있는 이상 최소한 당분간은 미국에 대한 거친 언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가능함.
-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대미 정책에서 철저하게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함. 국내에서는 자신의 재집권을 반대하는 야권의 시위가 이어지자 미국이 배후를 조종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음. 비영리기관들이 미국 등 해



외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했는가 하면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행위도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강화함. 반면 대외적으로는 반미정서가 강한 유권자의 표를 빼앗길 위험을 감수하고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군인들이 자국의 공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함.

- 오바마 대통령도 '분리대응 정책'을 폼. 러시아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아프간전과 이란 핵개발 의혹, 세계적인 핵비확산 논의 등의 국제적 의제에서는 협력기조를 유지함. 오바마의 이런 정책은 2009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으로 하여금 신중한 개혁정책을 내놓게 할 정도로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함.
- 그러나 양국 관계가 앞으로도 이런 방식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푸틴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새로운 법을 다수 만들고 정치범의 형사 처분을 본격화하는 등 미국적 가치에 반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임.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새뮤얼 차랍 연구원은 "기존의 분리대응 정책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며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길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봄.

사. 중·일 관계

- **日 車업계, 센카쿠 갈등에 순익 1조7천억 원 증발(11/12, 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대립이 일본 자동차업계의 올 회계연도 순이익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1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의하면 도요타와 혼다, 닛산 등 7개 일본 자동차업체는 올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중국 시장 판매가 71만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이는 애초 판매 목표에서 약 20% 정도 줄어든 것임. 도요타는 20만대, 닛산은 17만5천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될 경우 7개 자동차업체의 회계연도 순이익은 애초 예상에 비해 약 1천300억 엔(약 1조7천80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 중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업체들의 실적 악화는 이미 현실화됨. 지난 달 중국 시장에서 판매 대수는 혼다가 53.5%, 도요타는 44.1%, 닛산은 40.7% 각각 감소함.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22.8% 증가한 것을 비롯해 미국의 GM(14.3%), 포드자동차(48.1%), 폴크스바겐(31%)의 판매가 증가한 것과 대비됨.
 - 일본 자동차업계는 정부가 지난 9월 11일 센카쿠를 국유화한 이후 중국에서 발생한 반일 시위와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으로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함. 하지만, 동남아시아와 북미 지역에서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회계연도 전체로는 순이익이 1조6천350억 엔(약 22조 4천억 원)으로 2011 회계연도에 비해 9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음.
- **中, 日측에 달라이라마 활동에 대한 엄정한 교섭 제기(11/14 인민일보)**
 - 13일 열린 외교부 기자회견에서,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1월 13일 오전



에 달라이 라마가 일본 국회 참의원 회관에서 가진 연설과 일본 측 의원들의 '티베트를 지원하는 의원 연맹' 발족에 대해 "시짱(西藏, 티베트)은 중국에서 떼어낼 수 없는 영토의 한 부분으로 달라이 라마는 종교라는 탈을 쓰고 국제사회에서 장기간 중국분열 활동을 벌인 정치적 망명자다. 중국은 어떤 나라도 어떤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달라이 라마의 반중 분열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라고 밝힌.

- 홍 대변인은 일본 우익단체가 공공연하게 달라이 라마의 반중 분열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으로 중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의 달라이 라마와 우익단체의 상기 활동에 대한 방관자적 태도는 중일 간 전략적 호혜관계 원칙과 정신에 위배되므로 중국은 일본 측에 엄정한 교섭을 이미 제기했다고 전함.

● 후쿠오카 中영사관 발연통 투척사건 범인 잘못 인정해 (11/14 인민일보)

- 교도 통신에 따르면, 후쿠오카 주재 중국총영사관에 발연통(發煙筒)을 던져 폭력수단 업무 방해죄로 기소된 건축노동자이자 정치단체 회원인 일본인 남성(21세)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림. 이 일본 남성은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숨김없이 자백했다고 함.
- 검찰 측은 피고 측에 1년 6개월의 유기징역 선고를 요구하며 "감형을 참작할 만한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고, 변호인 측은 집행 연기를 요구함. 심리는 오늘(13일) 재판에서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재판 결과는 19일에 발표된다고 함.
- 기소 내용을 보면, 이 일본인 남성은 올해 9월 17일 저녁에 후쿠오카시 중앙구에 위치한 중국총영사관에 발연통 2개를 던져 총영사관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함.

● "日, 주중 대사 12월말 교체"(11/16 연합뉴스)

- 신임 주중 일본 대사가 12월말에 부임한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함. 일본 정부는 내주 내각회의에서 기테라 마사토(木寺昌人) 내정자를 정식으로 발령 낸 뒤 연말에 부임하게 할 예정임.
- 기테라 대사 내정자는 이미 중국 정부의 동의를 받았음.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 현 대사는 이달 말 귀국하는 만큼 한동안 호리노우치 히데히사(堀之内秀久) 주중 공사가 대사 업무를 대신 수행함. 기테라 대사 내정자는 1991~1993년 외무성 중국과에서 일한 것 외에는 중국 관련 업무 경험이 적지만 인맥이 넓고 조정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짐. 외무성 국제협력국장을 거쳐 지난 9월부터 내각관방 부장관보로 일해 왔음.

아. 중·러 관계

● 러 메드베데프 총리, 中 시진핑에 축전 (11/15, 연합뉴스)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중국의 새 지도자로 부상한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총리실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 러시아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날 축전에서 "통합 러시아당을 대표해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직에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메드베데프는 "공산당의 지도 아래 중국 국민은 사회경제 발전과 과학,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입지도 현저히 강화됐다"며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결의 사항들의 이행이 중국의 지속적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메드베데프는 이어 "통합 러시아당과 중국 공산당이 경제, 지역 간 및 국경 관계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양당의 지속적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당신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 한편 러시아의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새 지도부 출범에 불구, 러-중 양국 관계는 이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한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 부소장 세르게이 루자닌은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한 새 중국 지도부가 대외 정책에서 러-중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계승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미 관계의 침체화와 일정한 긴장관계 등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중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 그는 러-중 양국 간 경제통상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정치적, 전략적 관계는 아주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통상 및 투자 수준으로 볼 때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중국 관계에 크게 뒤지지만 그럼에도 러시아는 중국의 비공식적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중국의 새 지도부가 러시아와의 협력 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이지만 이 같은 협력이 동맹 관계로까지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도 러시아도 이를 원치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 루자닌은 반면 경제적 상호의존성에 불구,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는 "중국과 미국의 통상·투자 규모가 4천억 달러(약 435조원)라는 엄청난 규모에 도달했기 때문에 양국 관계는 상호의존적이 됐다"며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모두 중장기적으로 실질적 경쟁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쉽게 말해 미국은 전통 강국이고 중국은 신흥 강국으로 말할 수 있다"며 "따라서 그들의 갈등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 주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국제경제및국제관계 연구소(IMEMO)' 수석연구원 알렉산드르 살리츠키도 중국 새 지도부 출범으로 러-중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중국과 미국 관계의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한다. 살리츠키는 "중국은 미국에 국가적 주권과 관련된 원칙적 문



제 등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양국 사이의 타협은 부차적 성격의 문제들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봄.

자. 기 타

- "日美동맹, 양국 범위 넘어 中의 침해해선 안돼"(11/12, 인민일보)
 -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미(日美) 동맹이 특정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룬 합의는 양국의 범위를 넘어서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특히 중국을 포함한 3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지적함. 이어 일미 양국이 현지국과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존중하고 현지의 평화 안정에 유익한 방향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 본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일본 방위대신이 최근 미국 측에 현재 중일관계의 긴장 국면 속에서 <일미 방위협력지침>을 수정할 필요를 제기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홍 대변인은 위와 같이 대답함.
- "日 정부, 연내 한중일 FTA 협상 개시 포기"(11/14,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연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한다는 애초 계획을 단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4일 보도함.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관계 악화 등을 고려해, 한중일 FTA 협상을 연내 시작한다는 애초 계획을 포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함.
 - 한국과 중국, 일본은 18일부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대립에 따른 중일 간의 외교 관계 악화로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음.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년 이른 시기에 FTA 협상을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한중일 FTA는 재작년 5월 3국이 산관학 공동 연구를 시작했고,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연내 협상 개시에 합의함. 또 한중일 실무자 협의회도 지난 9월에 종료돼 각국 정부의 정치 판단만 남은 상황임.
 -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FTA 협상의 연내 개시가) 간단치 않다는 것이 솔직한 의견이다"고 밝힌 바 있음. 중국과 일본은 지난 9월 11일 일본 정부가 센카쿠 국유화를 단행하면서 외교 관계가 극도로 악화했으며, 여전히 관계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
- 센카쿠 둘러싸고 오바마 대통령, 일중 수상과 개별 회담(11/16, 요미우리신문)
 - 벤·로즈 미 대통령부보좌관(전략 홍보 담당)은 15일,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는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노다 수상, 중국의 온가보수상과 개별적으로 회담한다고 밝힘.



-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일중 대립에 대해서, 대화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양측을 설득할 예정으로 보여짐. 오바마는 환태평양 경제연합회협정(TPP) 교섭 참가국등과의 회담 역시 예정하고 있어, 노다 수상과 일본의 TPP 참가를 둘러싸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